

다산포럼

히 옥



내신반영 비율을 둘러싼 교육부와 각 대학의 갈등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 하다.

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생부와 고교교육을 불신하며, 학업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수시로 보고서 필요성 또는 이와 유사한 통합교과형 논술을 거론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 관점의 양극화

의 수요처인 기업과 대학의 관계에서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대학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변동에 따라 고등교육의 과정을 실제 겪고 있는 당사자인 대학이 중등교육의 왜곡 및 왜곡이 예견되는 학생선발권 자유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태도이다.

다 더 질 높은 사교육이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교육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 정책과제이다.

아쉽게도 현재의 상황은 교육 평등주의와 교육 자유주의의 극단적으로 대립된 관점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의 근본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LIBRA컨설팅 대표·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가짜 박사' 의혹 받는 광주비엔날레 감독

최근 선임된 광주비엔날레 신정아 국내 공예예술감독이 학력을 위조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동국대 미술사학과 신정아 교수에게 7회 광주비엔날레를 총괄할 공예예술 감독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동국대는 물론 미술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육이 신 감독은 지난날 25일 학교에 사표를 제출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럼에도, 광주비엔날레 측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신씨를 예술 감독으로 선정할 것이다.

신 감독의 '가짜 박사' 의혹은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개막 1년을 앞둔 제 7회 비엔날레는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검증수사' 공정하고 신속해야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공방에서 불거진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이 전 시장측에 고소 취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지권의 반응은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이 전 시장측에 고소 취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에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수사의 중립성과 신속성이다. 검찰이 과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한 전례가 없지 않다.

정지권은 정치공방을 자체해야 한다. 대선정국에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겠지만 당리당략에 치우쳐서는 국민들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NGO 칼럼

최은순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국가와 사회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

력적으로 변해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일류대 보내는 것만이 지상 최대의 과제인 듯 교육 목표를 위해 학원으로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의 주변은 또 어떠한가.

교육이 교육다워야 학교폭력 사라진다

폭력이 죽을까지 부르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수록 내가 감해지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가는 우리 아이들, 이것이 어디 아이들의 잘못만인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고기 구워먹다...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습관중 하나가 공원에만 가면 꼭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곳에서 놀다 보면 아이 손에 기름이 잔뜩 묻어 있기 일쑤다. 주변에 푸른 녹지와 잔디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적 동물들



동물에게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어울릴까. 물론 아니다. 정치에 동물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몇몇 동물은 본의 아니게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미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진보 지식인이나 서민을 대표한다는 민주당은 당나귀와 무척 닮았고 거대 자본가와 보수주의자들의 대변인격인 공화당은 코끼리와 비슷한 이미지라는 것이다.

장애인단체 사칭 물품 강매 행위 없어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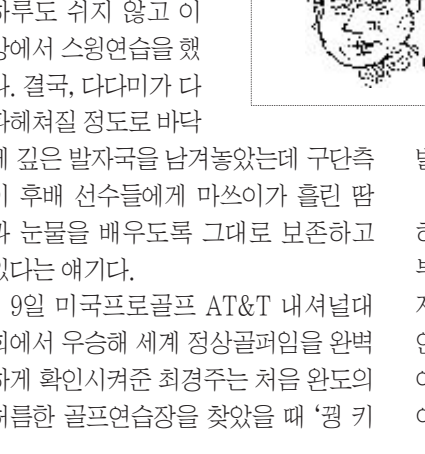
장애인 돌기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장애인 단체를 빙자한 유령 단체들의 물품 강매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또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유령 장애인 단체를 만든 뒤 전국의 기업체나 관공서 등을 돌면서 화장지 등 생필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한다.

無等鼓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2군 기숙사에는 특별한 방이 있다. 일본 전통의 다다미 방인데 사방 벽에 거울이 붙어 있다.

프로의 맘과 눈물



우에서 골프를 치는 나'고 물었던 촌놈이었다. 입문 3개월만에 첫 라운드를 위해 찾은 광주 송정리 공군부대 골프장에서 90타를 치는 소질을 보였지만 서울에 올라간 뒤 연습장에 갈 돈이 없어 지하 단칸방에서 골프채로 빈스윙만 하는 힘든 생활을 했다.

2000년 미국 PGA 투어에 진출했으나 박세리 등 여자선수들이 더 유명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고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말할 상대도, 의논할 사람도 없어 하느님에게 상의했다고 말할 정도로, 맘과 눈물의 골프인생이었다.

2002년 PGA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뒤 '앞으로는 두배로 노력할 것이다'고 다짐했고 벌써 6번이나 우승컵을 들었다.

천재 소녀골퍼 위성미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모와 스폰서, 코치를 거론하며 여지가 바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浩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